

전 남

전남도 청용·강진 백사 등 어촌체험마을

인기만큼 소득도 '쑥쑥'

전남도내 각 지역의 어촌체험마을에 도시민들의 발길이 찾아지면서...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은 26개소, 조성중인 곳은 5개소로 총 31곳에 이른다.

올 여름기간 동안 26개 어촌마을 가운데 18개소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1만1천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도군 청용·죽림·접도 등 어촌체험마을은 개매기, 조개잡이, 독살 체험 등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3개 마을의 올 상반기 입장료는 6천600명이 방문해 3천300만원, 특산물 판매도 1천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청용 어촌체험마을은 지난해 방문객 3만여 명이 몰려 개매기 체험을 했다.

전도군은 선상 낚시와 개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객 유치...



개매기·조개잡이 등 독특한 프로그램 호평

관광객 대거 몰려 입장료·특산물 판매 효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 역시 최근 열린 청자축제 기간동안 행사장 인근인 백사마을, 하저마을, 서중마을 등 3개소에 어촌체험장을 마련해 개별체험을 비롯해 콘도형 낚시, 독살체험 등을 실시,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청자축제가 펼쳐진 9일간 관광객 1천200여 명이 어촌 체험장 3개소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발생한 2천만 원의 수익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어항가에 어촌 소득증대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도시민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 어촌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어촌체험 관광을 낙후된 어촌의 환경개선과 지역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전도=박현영기자 hypark@



손발 대줄 농기계 빌려 드려요

장성 지역농업인들이 지난 19일 농기계 임대 사업장 준공식후 다양한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은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콩 탈곡기 등 35종 132대를 갖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했다.

<장성군 제공>

나주대학 정식이사체제로 전환

13년 임시이사체제 마감... 신임 총장 "명문대 성장 최선"

지난 13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나주대학이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20일 나주대학에 따르면 학내분과가 심화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7년부터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행정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나주대학이 정상화되면서 교육부가 지난달 16일자로 그동안 파견해왔던 임시이사를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 설립자가 적극적인 학교발전에도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왔던 학교행정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나주대학 신임 임체규(한약자원학과 교수) 총장은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는 학교발전보다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데만 급급했다"며 "학교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명문대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대학은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산·학 협력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각종 연구사업에 학교측이 중점적인 예산을 투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에 따라 소외돼 왔던 학생들의 후생복지 사업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나주대학은 22일 신임 임체규 총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나주=최승희기자 srchoi@

지역 명문고로 우뚝 선 완도 소안고

전교생 47명 3년동안 4년제 대학 82% 진학

완도 최남단에 위치한 소규모 고등학교가 지역 명문고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완도 소안고등학교(교장 김철식·사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대구한의대 등 4년제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한다.

전교생이 47명에 불과한 소안고의 이러한 성과는 사실 학원도 없고 문화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실정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다.

소안고 학생들의 성적과 진학률이 높아지기까지는 김철식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김 교장은 부임 이후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사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등 교육여건 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따라 '창의성 영상 스크린 교육'을 도입, 학생들에게 영화상영 등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업태도 등을 직접 보게 하고 자녀와 영화 감



상도 함께하게 하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분석을 정밀하게 한 후 맞춤형 학생진학 학습관을 3개소 만들었고 위왕랑 교사를 비롯해 전체 교사들의 희생적인 학습지도가 뒤따랐다. 김철식 교장은 "교사들의 헌신적인 교육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21세기 지식정보와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목사골 나주, 천년 역사 빛났다

음성·금성관 등 복원... 중세도시 재현 관광자원화도

목사골(牧使) 나주의 천년 역사 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호남의 도읍지였던 나주읍성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관아인 금성관·목사내아·서익현 등이 옛 모습을 되찾는 등 역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3년 나주읍성 중 남사 내아 등이 복원됐으며 2007년 금성관(객사)과 동익현이 원형을 되찾았다. 시는 올 연말까지 동헌 터에 위치한 금계 매일시장을 이전하고 2012년까지 향청, 이청 등 관건물을 모

문은 올해 부지매입 등에 들어가 2011년까지 복원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아 주변에 대한 복원과 정비에도 본격 착수해 2004년 망화루와 서익현을 복원한 데 이어 객사 터 발굴조사도 마무리했다.

2006년 나주향교 동재와 서재, 목사내아 등이 복원됐으며 2007년 금성관(객사)과 동익현이 원형을 되찾았다. 시는 올 연말까지 동헌 터에 위치한 금계 매일시장을 이전하고 2012년까지 향청, 이청 등 관건물을 모

두 복원할 계획이다. 나주읍성 복원에는 165억원, 관아터 복원과 정비에는 350억원이 투입된다. 고려시대에 축성된 나주읍성은 서울 도성과 같은 4대 문과 객사·동헌 등을 갖춘 전라도의 대표적 석성(石城)으로 둘레 3.7km, 면적은 97만2천600여㎡에 이르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나주목사행차, 삼현육각공원 등 중세 지방도시의 문화프로그램 재현 등 관광자원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 김중순 문화재팀장은 "호남의 도읍지였던 나주의 옛 모습 복원을 통해 역사도시의 위상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현철기자 chungj@

목포세관, 대한조선 방문

통관비용 절감 방안 논의

목포세관은 지난 19일 선박 건조업체인 대한조선(주)을 방문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통관관련 부대비용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대한조선 측은 공장 내 야적장 협소로 선박건조시 주요 원자재인 수입 철관의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세관은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 장치를 적극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목포세관은 원거리에 위치해 민원업무 신청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사전신청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양섭 목포세관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직접 관세 수출·입 업체를 방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기업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이참 관광공사장 해남 방문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검토



이참(왼쪽) 한국관광공사 신임사장은 20일 해남을 방문, 관계자들과 함께 화원관광단지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김중순 해남군수와 면담을 했다.

김 군수는 이 사장에게 지지부진한 화원관광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고 ▲관광단지 이주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영농활동 ▲토지매입가와 이주단지 택지분양가 해결 ▲블랑코비치 인공해수욕장이 내년 개장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화원관광단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선 전남도와 해남군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 빠른 시일내에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Large advertisement for Kim Dae-jung's presidential campaign. It features a large portrait of Kim Dae-jung on the right and several smaller images on the left showing him interacting with people. The text reads: '김대중 전 대통령서거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Below the images are logos for '명성광고기업' and '시메스캐디칼(주)'. A vertical banner on the far left says '謹弔'.